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3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16번(주 예수 바라보라)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2장 37-50절(인간이 주는 영광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한다)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공지사항(판공성사, 성주간과 부활대축일 준비, 예비신자 초대하기, 성서공부반 모집)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19장(주님은 우리 위해)

MEMO

[아시겠지만]

* 회개의 덕의 외적인 표현 *

“ 기도, 자선, 단식형태로 드러나 ”

사순절이 시작되면, 늘 회개와 보속의 정신이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한계와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하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방식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이 덕은 내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외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의 덕의 내적인 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깊이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단순히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권하는 덕을 받아들일 자세까지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회개의 덕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서와 함께 교회의 교도권은 전통적으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게 하고 자선은 형제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가운데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과 모습을 포기하게 하며 단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감수성과 충동들에서 자유롭게 하는 가난과 정결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나아가 이 회개의 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삶 안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깊은 영성은 지금까지 이런 회개의 덕을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창조하였고 발전시켜 왔으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큰 대전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의 형제애의 실천은 많은 경우에 회개의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감된 이들을 위한 봉사나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 등 세상의 음지를 밝게 하려는 시도들은 특별히 죄와 어둠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을 때 더욱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회개의 덕을 표현하는 방식은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불균형한 몸과 마음의 성향으로 죄나 한계를 고통스러워하다가 생산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지나친 자학이라든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자폐적인 증상도 나타난 것이 교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덕은 은총이기에 모두가 기쁘게 쓸 수 있도록 교회와 성서의 가르침과 균형 갖춘 신앙감각이 필요합니다.

〈성서묵상〉

주제 : 인간이 주는 영광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한다.
(요한 12, 37-50절)

요한복음서 저자는 유대인들의 불신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보도를 마감한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징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37절) 38-40절은 불신의 이유를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44-50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독자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37-41절은 요한복음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불신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즉 하느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예정 곧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신비이다.

이는 요한복음서가 씌어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 인간이 주는 영광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할 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44-50절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결론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보지 않았다.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에만 눈길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로 멀어짐을 선물로 준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예수님과 열린 만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리라고 오래 전에 예언자(이사야)가 미리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주님께서서는 왜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신비에 속한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드러내 놓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회당에서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듣고 그대로 할 것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한다.

나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47절)

- 매일 그 날 복음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까?
- 가족과 이웃 안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만나고 계십니까?

[겨자씨]

도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다고...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야 팔십 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시편 90,11). 사람은 누구나 순조로운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시편의 말씀처럼 이 삶의 바다에는 뜻하지도 않은 폭풍과 해일이 일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병원인데 서둘러 오십시오. 당신 아들이 조금 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입니다.”

“참 안됐지만 너무 늦었군요. 간암 말기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것을 백혈병으로 죽게 하시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다른 일을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풍파들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큰 죄나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이 닥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런 것인데, 모든 잘못에 일일이 시비를 따지어 벌을 주신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사는 게 다 죄란 말인가.’

자신이 고통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여겨 나오는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하느님의 뜻’이라며 위로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할 경우, 때로는 반드시 부닥쳐야 할 문제까지도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고통의 원흉이란 말인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늘 하느님이 문제입니다. 하느님이 진짜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늘 보살피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실제로는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인간 고통의 원흉으로 결론을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잘라 말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런 일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교는, 고통이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겪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지,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곧바로 절망하게 되고, 그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저러한 고통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인데, 고통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반드시 평화가 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다면 결코 고통도 갈등도 역경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런 것은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진리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타타타’의 가사 한 구절을 펄쩍 떠올립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있나?”

2002년 3월 경향잡지에서